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키릴로스의 성탄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모두께 주님이시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천여 년 전 하느님께서 육화하셨다는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 영혼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땅에 오시고, 사람은 하늘에
올랐습니다.”(대축일 만과 스티키라 중)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악마에게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방관할 수 없으셨기에” 세상에 나타나시었고, “시초 없고
표현될 수 없는 분께서 오류에 빠진 당신의 조물을 구하러 오셔서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위대한 선포자들의 놀라운 예언들은 실현되었고, 수천 년 동안 죄의
무게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채 지상의 일생에서 뿐만 아니라 임종에 있어서도 저주에
시달리며 구원과 속량을 기대해왔던 인류 앞에 천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꽃 피시는 동정녀로부터 육을 취하시고”(성모 탄신 카논 중), 낙원의
입구를 불의 검으로 지키는 케루빔이 “생명의 나무에서 물러선 것”(대축일 만과 스티키라
중)입니다. 신성한 아기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탄생하시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 친히 율법 아래
놓으셨습니다.”(갈라티아 4:4~5)

주님의 겸손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던지,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주군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연약한 아기로 나타나셔서, 하느님이시지만 영원치 못한 육을 받아들하시고 지상
생애의 고난을 견디시고, 불멸하시지만 자의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선택 받은 예언자, 의인과 당신의 진실한 종복들만을 위해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시고 그분께서는 죄인과
범죄자, 냉담한 이, 태만한 이, 비겁한 이, 격분하는 이, 심지어 당신을 죽인 이들까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도 질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 육신을 받아 주시어 그것을 하느님이신 당신의 육화, 십자가 고난, 그리고 생명에 찬 부활로서 새롭게 하시며, 이를 성삼위일체 품으로 올리시고, 하느님 어좌 오른편에 세우시어 축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지극히 정결한 피를 성체성혈성사에서 영하여, 구세주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모두가 한 몸과 한 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무질서의 파도가 교회의 배를 흔들고, 불화와 이견의 폭풍이 정교신도들의 일치를 동요시키며, 원수이자 유혹자에 의하여 암우해진 사람들이 생명수의 샘보다 "사특한 이단들의 흐리고 마시기에 적합치 않은 샘"(제 1차 세계공의회 성교부 카논 중)을 선호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잡다난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으며,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지상에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면서 무질서, 대립, 갈등을 극복하고, 이교(離敎)를 치유하고, 전쟁의 공포를 우려하고 억압과 불공정에 고통 받는 이들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빈궁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누추한 동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과연 동굴보다도 못하고 가축용 구유보다도 초라한 장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뜻뜻미지근하고, 공허하고, 정념의 노예가 된 인간 마음의 죄로 초토화된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거처로 삼고, 주님께서 문 앞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자신의 삶에 들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 안에 그분 당신께서 활동하시게 해드릴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상기할 힘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구세주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탄생에 환호합니다. 천사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목자들은 경축하며, 박사들은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데, 단 한 사람 헤로데의 완악하고 시기에 찬 마음만이 신성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비열함에 떨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도 생각해봅시다. 과연 자신의 행위들에 있어서 그와 닮지 않았는지, 안녕과 편리를 자기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지,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재능 있고 더 착해서 더 나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들 앞에서 비방하러 애쓰며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지, 자신이 최고지위로 올라가러 위계질서를 뒤엎으려 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원천이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계명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양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자신의 날조된 생각을 진실로 포장해 내놓으며 다른 이들을 미혹하지 않는지, 우리가 자기 야심에 찬 행동들로 그리스도의 옷을 찢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신앙 안 형제들 가운데 불화와 불평의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는지?

이제 하느님이신 아기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신성한 진리와 마주하고 “정념의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립시다.”(히브리 12:1)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1 코린토 13:4~7)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정교의 일치 강화와 사랑의 증대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대축일 예배 본문들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탄생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육화가 가능하게 하였던 지극히 정결하신 동정녀 마리아와 의인 요셉 약혼자, 거룩한 선조들도 송영(頌榮)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축제일에 자신의 이웃들을 상기합니다. 부모와 친구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말을 건네며,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하느님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지극히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며, 보이지 않으시는 성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거하시리. 아멘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2019/2020 년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 모스크바